

맑은 햇살이 내리는 일요일 오후, 말끔히 단정된 현충사를 찾았다. 초겨울의 정돈된 현충사는 맑은 햇살아래 상쾌함이 더 한층 우리를 반긴다. 일요일인 오늘 현충사는 충무공이 얼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먼저 이순신 장군의 영전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곧장 이면의 묘를 찾았다.

초겨울의 스산한 바람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구름, 그 속에 높이 올라 앉은 이면의 묘와 비문은 우리 젊은이의 피를 끓어 오르게 했다.

면은 1577년 우리의 고장 아산에서 충무공의 세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물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지혜와 용맹을 갖추었으며 말 달리고 활쏘기를 잘하며 부모의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항상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라며 그의 의지를 굳힘으로 공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은 면이 당신을 닮았다하여 무척 대견해 했다.

그후 임진란이 일어났다.

면은 이때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인 아산에서 있게 되었다. 그는 전장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다. 이날도 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을 읽고 있을 때다. 그런데 밖이 무척 소란스러웠다.

면은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밖에 무슨 일이라도 있단 말이나?"라며 물었다. 이에 하인이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왜놈들이 동네안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는 등 갖은 행패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요."라고 하며 부들부들 떠다. 이에 면은 두손을 불끈 쥐었다.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운단 말이나. 내 기필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면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면은 왜놈들 중에서 장수인 듯한 자의 앞에 버티고 섰다. 면은 천지가 울릴듯한 거대한 음성으로 "네이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놓고 짓밟는단 말이나, 하늘이 두렵지 않더란 말이나?"라고 외쳐 꾸짖으며 일본 장수에게 대들었다. 이에 일본장수는 가소로운 듯이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고선 "무엇이, 조그마한 놈이 감히 누구이 노에게 큰소리 쳤소까?"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이면이다.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분탕질이나?"

"하하.....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본데 나는 스즈기 대장이다. 이 땅은 곧 우리노 땅이 된다."

"무엇이? 이 땅은 조선인의 피와 얼이 담긴 우리의 땅이다. 너희 더러운 왜놈에게 빼앗길 상 싫느냐? 내가 있고 우리 조선인이 살아 있는 한 너희들에게 한 치의 땅도 못준다. 이놈" 이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에 참지 못한 일본 장수가 칼을 내리쳤다.

"에잇—" "으악" 하늘이 알리요. 분하다. 그는 21세의 꽃봉오리로 스러졌다. 하늘도 통곡하는 듯 땅은 붉은 피로 덮인 채 젊음의 피는 스러져 갔다. 명량해전의 패전을 육지에 올라와 분풀이 하는 일본인의 행패였다.

고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즈음 충무공은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 9월 16일 명량해전 뒤에 고군산도까지 갔다가 우수영으로 돌아 내려온 것은 20여일 뒤인 10월 초 9일이었다. 며칠 뒤인 10월 14일 새벽, 충무공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충무공이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길 아래로 넘어지자 그의 세째 아들인 면이 다가와 웃고 가는 것이다. 충무공이 이상히 여기며 지냈는데 그 날 저녁에 둘째아들 열에게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겉봉에는 "통고" 두 자가 적혀 있고, 글 속엔 면이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노라고 적혀 있었다. 충무공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무참히 죽다니, 뜻밖의 소식을 들은 충무공은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분하고 애통한 마음에 흰 띠를 띠고 매일 통곡했다. 그리고 일기에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옳은 일일 진대 네가 죽고 내가 살다니 남달리 영특하므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천지가 캄캄하다." 이렇듯 슬프고 안타까이 기록했다. 그후 그달 29일에 목포 고하도로 진을 옮기고 마지막 진을 쳤다.

이때 면을 잃은데 대한 사적인 슬픔은 이미 떨쳐 보낸 뒤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공은 어슴푸레 낮잠이 들었는데 면이 꿈 속에 나타났다. 그리곤 자기를 죽인 왜적이 공의 직속에게 사로 잡혀와 있음을 아뢰곤 사라졌다. 그러자 공은 즉시 포로들 중에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 냈다. 공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인 왜장을 죽임으로

써 원혼이 되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을 아들을 고히 잠들게 했다.

이럴듯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꿈 속에까지 나타났을까?

용감히 싸우다가 훌륭히 죽어간 면의 모습이 눈 앞에 가린다. 진정 아버지 못지 않은 아들로 천추에 길이 남을 것이요. 우리 마음속 깊이 살아 숨쉴 것이다. 소나무 사이로 외로운 가락의 음악이 여운을 남긴다.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묵념을 드리고 그 곳을 나왔다. 현충사를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도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우리의 땅은 우리 손으로 지키자."라는 결심이 굳어져 왔다. 밝던 하늘에는 어느새 먹구름으로 가득찼다. 금방 눈이라도 내릴 듯이.....